

1차 확대운영위

확대운영위

안건 ; 하나. 기간 총여학생회 사업보고

두. 새터에 대해

세. 여학생 휴게실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네. 방 중 확대간부수련회 및 방 중 사업 공유

※별첨자료 ; 여학생부의 지위와 역할

3천의 자신감으로 8천과 함께여는

13/대/ 실/천/하/는/총/여/학/생/회/

= 총여 식구들 소개 =

회장 홍정은 (경영, '94)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자중엔 최고나이라고 말하며, 늘 나이탓을 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3000여학우들 한 번씩 손잡아 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열심히 뛰어 다니며 1년을 보내는 것 같죠? 우리 한 번 지켜 봅시다.

부회장 이재순 (응용통계, '95)

아직은 장난끼가 숨어있는데도 식함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며 내숭을 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을 감히 희생 할 수 있는 우리 부회장님은 라 선'후배, 동기에게 인정을 받는답니다. 이런 부회장님을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사무국장 김정일 (화학, '95)

2년째 총여에 뿌리를 박으며 사무는 나밖에 없다며 자신있게 힘친 우리 사무국장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걸 정도로 내성적(?) 인 분이지만, 노래방에 같이 가면 모든 상상을 깨버린답니다. 총여 학생회의 청일적인 사무국장님을 한 번 지켜봐 주세요.

정책국장 최정희 (환경공학, '93)

우리 회장님의 나이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분. 작년에 총여회장을 맡은 후 부족한 부분을 통해 완성시켜 내겠다는 각오로 지금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참 어리숙한 저희 정책국장님의 활동 기대해 주세요.

정책연사국장 김은정 (물리, '95)

처음 이분을 보면 모두 한 번쯤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너무 귀엽고, 어리게 생겨 97학번이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평소에 있을 땐 빈틈이 많아 보이는데,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합니다. 이런 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오? 1년 동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정책선전부장 백인영 (응용통계, '96)

이번 회장, 부회장님 선거결과 발표때 한 달대 발표후 당선을 축하한다며 선거본부에 뛰어들어온 분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모든 발표를 다 한줄 알고 들어왔다며 웃는 정책선전부장님이 지금 총여학생회에서 일을 합니다. 참! 인연이라는게 무섭긴 무서워요. 가장 부지런한 정책선전부장님은 후배를 맞는다는 생각에 요즘 늘 행복해 해요. 내년엔 97학번들과 함께 자주 만나주세요.

정책문화부장 양영은 (경영, '96)

재주가 많은 우리 정책 문화부장님은 딱 보면 문화부장님이랍니다. 그러나 달전은 자복명의 영광에 휩쓸려 자신이 공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명 양공주. 그러나 백설공주같이 착하고 사람을 잘원는 공주나 건디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정책문화부장님 노래 솜씨 이따 한 번 볼까요?

정책연사부장 이윤정 (중문, '96)

방중에는 아직 경향을 못하고 있어 아직은 자주 못 본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는 총여학생회간부로서 자질이 있는 분이랍니다. 1학번때 새터에 가서 보았던 여성마당에 감동을 얻어 총여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갖다가 2학번이 되어서 간부로 결의를 한분입니다. 총여학생회의 매력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정책연사부장님을 찾아주세요

*이상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이렇듯 다른 모습이지만 단 하나 같은 점이 있습니다. 3000여학우의 문제를 8000학우와 함께 뛰는 총여학생회를 회장님, 부회장님과 함께 해 보겠다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저희 총여식구들과함께 올 한해 구국경기의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총여학생회는 열려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산 946

전화번호: 0331)40-7809

회장님 호출번호: 015-121-4982

13대 실천하는 총여학생회♡

= 기간 일정보고 및 사업진행상황 =

1) 일정보고(1996.12~1997.2)

- 11월 20일 : 13대 실천하는 총여학생회 회장,부회장 당선
- 12월 6일 : 정신대 후원사업
장소: 보물섬
적자인 사업이었으나, 이후 투쟁과 기금마련으로 보완하겠음.
- 12월 17~18일 : 이월 L.T
장소: 속초
내용: 댕거리, 12대 평가, 13대 이월식
- 12월 23일 : 1차 간부회의 =매주 월,수,금 정기모임 결정
단위운영위 간담회 내용공유
- 1월 12일 ; 총여학생회 L.T
- 1월 24일 : 여학생부 확대운영위
- 1월 25~26일 : 과 회장수련회
- 2월 2~4일 : 확대간부수련회
- 2월 22~27 : 새내기 새로배움터

* 두달동안 인문대 운영위 , 경상대 운영위 및 간부회의, 미체대 운영위, 이과대 운영 위, 야간대 운영위, 응용통계학과 간부회의 속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12월 26일 노동법,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 많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투쟁들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저희 총여학생회도 함께 벌여나갔습니다. 이 일정들은 단대보고시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일정에서 생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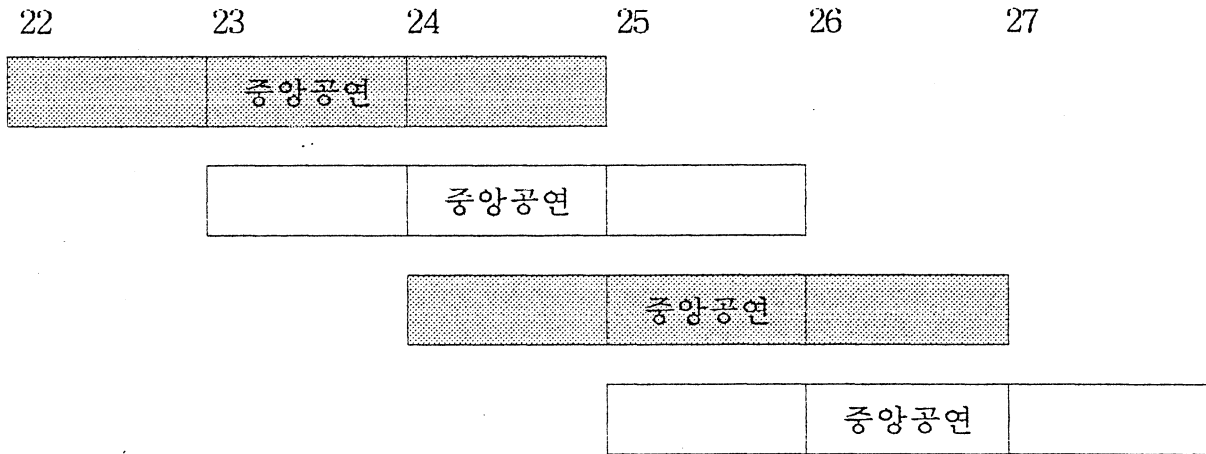
2) 사업진행 사항

- ▶ 경.사.모 통신에 총여전용방 설치
- ▶ 도서관 내 여학생 휴게실 설치
- ▶ 여성용 자판기 전면 설치
- ▶ 여학생 휴게실 근로제
- ▶ 중앙 여학생 휴게실 복지안(음료수 자판기, 정수기 설치)
- ▶ 총여학생회 전용게시판 설치

= 새터에 대하여 =

- 장소 : 경기도 포천 금강 수련원
산정호수 유스타운
- 일시 : 2월 22일~27일까지
- 회비(미정): 신입생 40,000원
재학생 38,000~40,000원

▷ 새터 진행형태 및 단위배분
-4팀 2단체씩 가는 경우



* 모양의 두팀 장소가 동일하고, 모양의 두팀장소가 동일함.

-장소별 단위배분

☞ 산정호수

2. 새·터 에 관한 총여학생회 사업

1) 총여학생회 시간

중앙시간 or 마당별 행사 (마당별 행사일 경우 여성마당으로 포함)

2) 여성마당의 기초

성문화의 올바른 정착

→ 학원은 가장 올바른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장 건강한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주성을 무시한 성의 억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성의 과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대학에 첫발을 디딤 새내기에게 두성이 상호·보완적 관계속에서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올바른 성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 기초확정 및 여성마당안에 꼭 넣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보론 1

과여학생부에 대하여

과여학생부의 현재의 모습

어떤과에서는 여학생 모임이 반지계를 하기도하고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로 그치거나 과행사때마다 뒤처리를 하고 잡일을 도와주는 수준의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과에서는 과여부가 중심으로 봉사 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수익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회비보조를 위한 수익 사업이거나 내용성이 별로 없는 봉사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과에 여부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이 우리 학교에서 보면 모범적인 과여학생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과여부가 여학우의 특수성에 기반한 자기 내용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여학우들을 대중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여나 단대에서 직접적으로 과를 만나고 여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과학생회를 강제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내에서도 여부가 소외되기 쉽고 따라서 주체를 세워내기도 힘들다.

● 과여학생부의 지위

- ① 과내의 집행부서이다. 여학생부가 과내의 다른 부서와 갖는 공통점은 과학생회의 하나의 부서로서 과학우들을 다양한 내용으로 묶어 내며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 ② 과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 부서이다. 여학우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과여학우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
- ③ 총여학생회-단대여학생회(부)-과 여학생회(부)의 체계로 과여학우의 요구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며 여학우들에게 총여나 단대여부의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여학생부의 역할

- ① 여학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학우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워 내야 한다.
- ②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주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생활들을 많이 하는 여학우들이 과 여학생부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체육대회나 봉사 활동(탁합, 기합등)속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 ③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킨다. 우리 여학우들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아직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에 민감하지 못하다. 여성 문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과제

- ① 여학생부장이 튼튼히 세워져야 한다.

우리 학교 대부분의 과들을 보면 여학생부가 없거나, 있어도 여학생부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과내의 여학우들도 여학우 모임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임을 갖고 싶어도 주도적으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어서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사람이라도 과여학우들을 책임져 보겠다는 자세로 여학생 주체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여학생부장은 여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여학생부가 자기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여학생 부장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처음 여학생 부장이 되어서는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을 갖지 못하고 막막해 하면서 지치는 모습을 본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학습하고 고민해야 자기 과 여학생부가 살아남을 수 있다.

- ③ 여부장중심으로 부원,소모임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학생부장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것보다 과여학생부원들이나 과여학생부 산하 소모임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④ 자기과에 맞는 사업의 내용을 찾아내자.

과의 학문적 특성에 맞게 그리고 과여학우들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들을 고민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여학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정기적인 모임속에서 작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할 때만이 여학생부에 소속감을 느끼고 과여학생부를 강화할 수 있다.

- ⑤ 단대여부나 총여와 체계적으로 만나 내자.

과는 과대로 총여는 총여대로 사업을 한다면 여학우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단대-총여로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우리 내용을 많은 학우들에게 알려 내고 사업을 더욱 풍부히 하자.

=이런 총여학생회가 되었으면...=

그 동안 간담회를 가지면서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총여학생회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총여학생회를 이해하는데, 또한 여부창의 역할을 고민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며 해서 준비했습니다.

1. 그 동안 8000학우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중사업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생각하는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원인을 짚어 본 뒤, 그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중 하나는 모든 사업이 여성 안의 사업으로 느끼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1년간의 총노선을 따라 사업을 진행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왜곡된 성을 바로잡고 인간적으로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하는데 여성만이 해야 하고 여성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서입니다.

또하나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분명 작년 사업 속에서 자주강좌, 열린학교 등 대중사업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층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조직력 있게 사업들이 전달되지 않아 8000의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간부들만의 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총여학생회는 올바른 성의 관점을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업 속에서 풀어 나가고 학내 연중행사-대동제, 체육대회 등-속에서는 총학과 연대하며 다가서는 사업들을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총여학생회를 여러분의 조직으로 받아 안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여학생부를 세워 주신다면 두 번째 이유로 생긴 문제점은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질책과 칭찬, 격려 부탁드립니다.

2. 과내에 올바른 여학생 체계와 총여학생회의 위상은 무엇 인가요?

먼저 올바른 풀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학과 같은 위치로 총여학생회가 있고 단대, 과여학생회장님으로 각 단대, 과회장님과 동등한 지위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런 일들이 되기는 힘듭니다. 아직 여학생회로 가기 전에 여학생부로서도 기층단위가 울퉁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부 확립 및 강화를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일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기층조직의 불확립으로 인한 총여와 학우들 간에 연대감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3. 여성만 늘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여성만이 잘살자는 것이 여성운동 또는 여학생 운동인가요?

분명 남성도 피해자입니다. 남성이기애 받는 스트레스-울면 안된다. 취직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나다. 이러한 성차별로 인해 받는 불합리성을 깨기 위해 여성이 일어난 운동이 여성운동이며 어느 곳보다도 남, 여 평등하다는 학원 속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꿔 보고자 일어난 것이 여학생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두 운동의 지향점은 여성이 이 사회의 지배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긴 왜곡된 점을 바로 잡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4. 여학생운동 속에서 여학우들의 대중적인 투쟁이 없나요?

이 부분을 말할 때 다시 한번 기층 골간의 비체계성을 이유로 들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요일마다 있는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학원내 향락, 퇴폐문화 퇴치를 위한 집회등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이런 투쟁이 여학우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8000학우들이 모두 느끼고 함께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여학생회는 정세의 흐름과 맞추어 학우들과 함께 여는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론조사, 하방사업, 현실 상황 파악 등의 일을 할 것입니다.

5. 여학생부가 왜 필요한지 느끼게 해 주세요.

지금 구국경기에는 3000의 여학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후년정도면 과반수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학우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옛날처럼 여성이 시집을 가기 위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 자신의 역할을 해 내며 살아가고픈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 바로 자아실현을 위해 스스로 대학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며 들어온 여학우들은 대부분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기에 여학생부는 필요합니다. 이런 여학우들의 생각들을 모아 내고 그런 한 힘들을 기반으로 학원 내의 여성으로서 받았던 피해를 없애야 합니다. 열 사람의 한 걸음보다 한사람의 열걸음이 더 큼니다.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여 여성의 복지부분, 취업난 등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내고 총여학생회와 또한 8000학우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여학생부가 해야 할 일 일 것입니다.

6. 여학생부장님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많이들 물어 보셔서 별첨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을 보아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특정사업을 해내는 것이 없고 사업을 해 나가며 학생회 강화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학생부장님도 우선 학생회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다른 부서가 아닌 여부장으로서의 과여학우들의 고민을 늘 하고 총여와 과, 단대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적인 사업 내용은 드릴 수 있지만 부장님들이 학생회간부들과 함께 고민하여 창조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르겠다면 총여학생회를 찾아 주십시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말씀드리거나 단대, 과회장님과 함께 고민하여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7. 총여학생회는 성문제만 다루는 곳입니까?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는 것은 중앙운영위에 총여회장님의 참가하여 그곳에서 결정된 학내·외 사업방향을 총학을 중심으로 해나가기때문 일 것입니다. 조직체계질문에 답한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총여학생회는 구국경기에서 아직은 단대회장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투나 투쟁속에서 총단위인데도 구국경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학에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올바른지 못한 성의 왜곡된 면들, 여성이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지적하기에 위의 질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입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는 구국경기 8천학우와 함께하는 삶을 3천여학우들 기반으로하여 학내·외 문제뿐만 아니라 여학생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길을 저희만이 하는일이 아니라 총학생회와 함께 8천 학우들의 힘있는 일로 이끌겠습니다.

사례】 부산대 여학생부

00과 여학생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전에 남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00과는 94년부터 여학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에는 절반이 넘는 수가 여학생이 되면서 여학우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이전의 학생회운영방식이 남학우 중심이었던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학생회장의 권유로 여학생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던 95학번 여학우를 주체로 세우게 됐다.

00과 여학생부는 주체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하긴 했지만 주체가 새내기들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꾸러졌다. 00과 여학생부는 주 1회 선체모임에서 여학생부 자체로 매주 여성문제에 관한 학습과 함께 큰 안건을 논의 하였다.

00부 내에 선전부와 연구부, 기획부를 따로 꾸려 활동하였는데 선전부는 여학생부의 사업이나 활동상을 알려내는 것과 학습을 공개적으로 학우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사전 광고하는 역할을 하였고, 연구부는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기획부는 여학생 신.구대면식, 과여학우 의식조사 설문지를 작성, 야유회, 재정관리까지를 맡아활동하였다. 각 부서들은 임시모임을 따로 열어 활동하였다.

과 학생회 집행부로서 여학생부장은 기본적으로 여학생부원들에게 과 사업들을 해설하고 참여토록하여 00과 세미나를 과 학생회와 함께준비하고, 과 체전에서 여학생 신.구대면식을 함께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 총여학생회와의 연계는 매주열리는 확대운영위공간에서 총여의 정책과 사업을 함께고민하고 여학생부의 정기모임을 통해서 여학생부원들과 같이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고, 두 달에 한번 씩있는 여학생일꾼대회에 참가하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여성문제를 연구한 소모임 등을 발표 토론공간인 열린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00과 여학생부의 올해활동을 통해서 과여학우들의 여학생부에 대한 인식이높아지는 성과를 내어오고 이런 인식들속에서 96학번짱을 세워 내년 00과 여학생부를 함께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더 과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수렴하여 과내에서 여학생부의 위치를 굳건히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도부터 고민하고 있다.